

김영훈 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개최

- 장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태양광 설치 중 추락, 지게차 부딪힘 사례로 토론, 부산고용노동청,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로 올해 건설·조선업 중대재해 “0”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6.(월),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일선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 서울·경기·충북·부산·대구·광주·대전 7개청장, 안전 발표 지청장 및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참석, 이외 지청장은 영상회의로 참석

이날 회의는 지방관서의 활동 실적·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사고사례 분석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며, 장관이 직접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고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토론에 참여하였다.

사고 사례 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대구서부지청), 지게차 부딪힘 사고(충주지청)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태양광 추락사고(발표: 대구서부지청 김성진 지청장)의 경우,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초단기 공사 특성으로 인해 점검·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 자체 실태조사 등 현장 DB 구축을 시작으로 사전 예방 노력, 지도·감독 강화, 지붕 관계자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지게차 부딪힘 사고(발표: 충주지청 최우영 감독관)의 경우, 사고 당시 경보음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게차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동선 분리가 중요하며, 그 예로 노동자 보행을 위한 건널목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적별 관리감독자(안전리더) 지정, 모국어로 번역된 시청각 자료 제공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운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일터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424명의 특공대가 지역 내 현장을 중복 없이 촘촘히 점검·감독한 결과, 올해 부산청 권역 내에서는 현재까지 건설업·조선업 사고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 박현우 감독관은 “기업 현장에 감독을 나가보면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실감한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수리조선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점검을 반복하며, 취약점을 밀착 관리한 노력이 올해 부산지역 조선업 사망사고 ‘제로’라는 고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한 뒤,

“지난 한 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후속 입법 추진,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와 함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점검·지원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최근 3년간의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막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전체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I를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한다면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3.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50)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8952)
			주무관	고준혁	(044-202-8954)



□ 추진 배경

- 산업안전에 대한 지방관서 기관장의 관심 제고, 빈발 사고사례
· 산재예방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26.3.16.(월) 10:00~11:30, 세종청사 내 회의실
- (참석 대상) **본부** 장관(주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실·국·과장,
지방관서 7개 지방청장(서울·경기·충북·부산·대구·광주·대전) 및 41개 지청장
 - * 7개 지방청장 및 안전 발표 지청장,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참석,
그 외 지청장은 영상회의로 참석

□ 회의 일정 : 90분 내외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2'	▶ 개회 및 국민의례	
10:02~10:05	3'	▶ 모두말씀	▶ 장관
10:05~10:40	35'	▶ 주요 중대재해 사례분석 발표 및 토론	▶ ❶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 (대구서부지청 김성진 지청장) ▶ ❷ 지게차 부딪힘 사고 (충주지청 최우영 감독관)
10:40~10:50	10'	▶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례 발표 및 토론 * 부산청 산업안전감독관 참석	▶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활동 등 (부산청 김준휘 청장)
10:50~11:28	38'	▶ 지방청별 2분기 산재예방 중점 추진계획 ▶ 본부 전달사항 (산업안전 관련 AI/AX 활용방안 등) ▶ 유튜브 실시간 소통	▶ 지방청 청장 (광주, 경기) ▶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 장관
11:28~11:30	2'	▶ 마무리말씀	▶ 장관

-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관입니다.
- 3월 중순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안전 특공대 여러분들은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매년 이맘때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저 또한 특공대의 한사람으로써 지난 3월 9일
전남 대불 산단에 있는 조선 업체를 불시 점검하였고,
이에 맞추어 8개 지방노동관서가
블록 제조업체, 선박 수리업체 등을 동시에 점검하였습니다.
 - 오늘 기관장 회의 또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끈을 다시한번 조여 맬때입니다.
- 이번 주 토요일(21일)에는 BTS 광화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제인이 지켜보는 ‘K-컬처’ 행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에 걸맞은 수준 높은 안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만큼, 관련 기업과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청인 서울고용노동청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안전 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한 해 우리부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원동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 2월에 안전보건공시제,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 안전 일터 신고포상금제 신설,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그리고 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 후속 입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감독관을 1,200명 증원하고, 안전일터 지킴이를 채용하여 현장 점검과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열악하다보니,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저도 취임 이후에 건설현장, 제지업체, 물류업체, 그리고 작은 조선소까지 여러 산업현장을 불시 점검했는데, 안전난간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는 현장이 여전히 산재해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 이제는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터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시기입니다.
-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 중대재해 발생 숫자는 감소하는 쪽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 기세를 잡았다면은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잡은 기세를 놓치지 말고 더 넓게 더 아래로 내려가서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바,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과정 추락사고, 측사 개보수 과정에서 추락사고,
작고 큰 업체를 떠나서 지게차 부딪힘 사고 등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의할 예정입니다.

- 태양광과 지게차에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는데
그동안 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됐는지, 우리는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정책 효과는 어땠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 진단이 올바라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의 재해조사 통계를 토대로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막 업무를 시작한 9~11시 사이, 점심시간 이후 1~3시 사이,
업무를 중단했다가 시작하는 그때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토의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 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감독관이지만, 전국의 모든 소규모 사업장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만 개에 달하는 작은 사업장들.

- 여러분 그동안 발로 뛴 헌신과 경험 위에
AI를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팅할 수 있고
여기에 기초해서 예방과 지원의 실효성을,
우리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낸다면,
저는 반드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AX와 합쳐질 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우리의 손을 바라고 있는지 찾아갈 것이고,
우리의 선제적인 지원이 작은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킨다면,
그야말로 바라던 지원을 우선하는, 예방을 선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 우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뛰었던 산업안전감독관, 지청장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너무 부담가지지 마십시오.
투명한 행정과 수평적인 리더십이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입니다.
-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병은 알리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합쳐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달성될 것입니다.

- 저도 여러분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서 올 봄에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추진 배경

- '25.12월경부터 국회, 언론 등에서 쿠팡 및 계열사들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등 의혹 지속 제기 등 사회적 이슈 대두
 - * (국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12.30.~12.31.)
 - * (언론) '25.12.18. “1억5천만원 줄테니 산재 신청 마라..쿠팡·김범석의 은폐 시도 더 있었다.(경향신문)
'25.12.18.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존재...CCTV 제공않고 돈으로 입막아(동아일보)
'25.12.22. 쿠팡의 산재 은폐 합의서 공개..언론·노조에 얘기하면 ”만형사상 책임(뉴스타파) 등 다수
- 쿠팡 및 계열사에서 산재 발생사실 은폐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 지속, 최근 사망사고 발생 등 감안, 쿠팡 및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II. 감독 계획

- *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담이득금, 산재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발생사실 은폐 의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 착수
- (기간) '25.3.16.(월)~
- (감독 대상) 쿠팡, 쿠팡CFS, 쿠팡CLS 센터 및 캠프 100여 개소
- (중점 감독 사항) 산재 미보고, 산재 발생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24년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
- (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조치